

# 〈川邊風景〉의 구조시학

尹 致 富

- | 차           | 레          |
|-------------|------------|
| 1. 들머리      | 4. 욕망의 삼각형 |
| 2. 작중인물의 설정 | 5. 공간구조    |
| 3. 카메라의 이동  | 6. 마무리     |

## 1. 들 머 리

〈川邊風景〉은 원래 〈朝光〉에 1936년 8월호부터 10월호까지 연재하던 중편 소설이던 것을 1938년 博文書館에서 단행본으로 내면서 장편소설로 확대한 월북작가 朴泰遠의 작품이다. 그 동안 월북작가의 대부분의 작품들의 논의가 그러하듯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에서 벗어나 1988년 7월 19일의 월북작가들의 해방전 작품들에 대한 금지조치로부터 해제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들 작품들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비단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한국문학의 연속성 문제를 밝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백으로 남아 있던

해방공간 문학사까지도 정리하여<sup>1)</sup> 우리 문학의 질과 양을 터 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꼭 타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청계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작중인물로 설정하여 광장적 의미의 여인들의 공간적 배경인 청계천 발태터와 사내들의 공간적 배경인 이발소 및 밀실적 의미의 여인과 사내들의 혼성적 공간인 평화카페·근화식당 등을 주무대로 서울 서민층의 부침 정도를 풍경처럼 묘사한 이 작품은 리얼리즘의 확대 소설, 세태소설, 순경아리직 문학, 시정문학, 생활 주변의 자화상, 생태학적 도시소설 등의 흐름에서 애기되어 왔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소설과 사회의 동질성을 소설이나 사회의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구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각도의 시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일관된 흐름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이 작품의 총체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의 필연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소설의 내면적인 구조와 사회의 내면적인 구조적 동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 하나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각은 밖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소설의 총체성 이해에 한계를 느끼던 것을 안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쪽으로 시선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이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René Girard의 욕망의 이론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중인물의 설정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것

- 
- 1) 金允植, "韓國文學의 連續性 問題", 《韓國近代文學의 理解》, 一志社, 1973, pp. 107~112.
  - 2) 崔載瑞, "「川邊風景」과 「날개」에 關하여: 리아리즘의 擴大와 深化", 《文學과 知性》, 人文社, 1938.
  - 林 和, "世態小說論", 《文學의 理論》, 學藝社, 1940.
  - 朴鍾和, "「川邊風景」을 읽고", 《博文》 6호, 1939.
  - 白 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0.
  -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成文閣, 1978.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弘盛社, 197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은 이 소설에 대해 얘기되는 파노라마식 켄캐방식내치는 Picaresque구조'화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 보고, 이들 작품인물들은 어떠한 육방구조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육방구조가 형상화된 공간은 어떤 것인 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작중인물의 설정

〈川邊風景〉은 '제1절 청계천 빨래터'에서부터 '제50절 천변풍경'까지 모두 50절로 되어 있으면서 자그만치 80여 명의 작중인물이 설정되어 있다. 이들 80여 명의 작중인물들을 각 절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제1절 청계천 빨래터'에는 이쁜이 어머니 · 귀들어엄 · 칠성어엄 · 점룡이 어머니 · 김침지(생터주인) · 용돌 · 민주사 · 신전집 주인 · 만들어엄 · 필원이네 · 취옥 · 점룡 · 칠성아범 등 13명, '제2절 이발소 소년'에는 김서방(젊은 이발사) · 최진국(젊은 약방주인) · 재봉 · 하나꼬의 어머니 · 하나꼬 · 기미꼬 · 한약국집 큰아들 · 한약국집 영감 · 기순 · 곰보 미쟁이 · 곰보 미쟁이 누이 · 신전집 주인 처남 · 신전집 작은 아들 등 13명이 등장하여 비교적 다른 절에 비해 작중인물의 밀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 '제3절 시골서 온 아이'에는 창수 1명, '제4절 불행한 여인'에는 만돌 · 수돌 · 만돌아비 등 3명, '제5절 경사'에는 이쁜이 · 이쁜이네 · 수모 · 강서방 등 4명, '제7절 민주사의 우울'에는 민주사 늙은 마누라 · 안성집 · 전문학생 · 청요리집 아이 등 4명, '제8절 선거와 포목전 주인'에는 포목전 주인과 그 처남 등 2명, '제10절 사월 팔일'에는 은방 주인 1명, '제12절 소년의 애수'에는 홍서방 1명 등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의 새로운 작중인물이 등장하여 제1절이나 제2절에 비해 그 밀집현상이 완화된다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제13절 딱한 사람들'에는 유기꼬 · 좀 똥똥하고 키 작은 사나이 · 키 크고 마른 사나이 · 메리 · 정옥 · 대머리진 손님 · 손주

3) 金重河, "朴泰遠論試攷: 「小說家仇甫氏의 一日」, 「川邊風景」에 한하여", 《世界의 文學》 49, 民音社, 1988, p. 206.

사 등 7명의 많은 작중인물이 새롭게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딱한 사람들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이다. 계속해서 '제15절 어느 날 아침'에는 금점군·금순(젊은 시골 여자) 등 2명, '제16절 방황하는 처녀성'에는 하숙주인·순동·금순 시아버지·금순 시어머니·중학생 등 5명, '제17절 샴터 문답'에는 행랑아범·신첨지·박서방 등 3명, '제22절 종말 없는 비극'에서는 표서방 1명, '제22절 장마풍경'에는 한약국집 며느리·각정이 등 2명, '제24절 창수의 금의환향'에는 얼음가게 주인·얼음가게 심부름하는 아이 등 2명, '제26절 불운한 파락호'에는 금점군을 툴 친 사나이 1명, '제27절 여급 하나꼬'에서는 다로 1명, '제31절 회화'에는 강옥주 1명, '제34절 그 날의 감격'에는 과부마나님과 그의 아들 등 2명, '제36절 구락부의 소년 소녀'에는 삼봉·영선·명숙·경순 등 4명, '제38절 다정한 안해'에는 용서방·신서방 등 2명, '제45절 민주사의 감상'에는 효준 1명, '제46절 근화식당'에는 근화식당 주인·시즈고 등 2명, '제47절 영이의 비애'에는 명준·명숙 등 2명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 장절에 설정된 작중 인물들을 등장하는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각 장절간 등장인물과 초점인물\*

장 절	등 장 인 물	초점인물
제1절 청계천 빨래터	① 이쁜이어머니 ② 귀돌어멈 ③ 칠성어멈 ④ 점룡이어머니 ⑤ 김첨지(샴터주인) ⑥ 용돌 ⑦ 민주사 ⑧ 신전집주인 ⑨ 젊은여인(만돌어멈) ⑩ 필원이네 ⑪ 취우 ⑫ 점룡 ⑬ 칠성아범	등장인물과 동일
제2절 이발소의 소년	① 민주사 ② 김서방(젊은이발사) ③ 최진국(젊은약방주인) ④ 재봉 ⑤ 하나꼬어머니 ⑥ 하나꼬 ⑦ 기미꼬 ⑧ 한약국집큰아들 ⑨ 한약국집영감 ⑩ 기순 ⑪ 신전집주인처남 ⑫ 품보미쟁이 ⑬ 품보미쟁이 누이 ⑭ 신전집 작은 아들	재봉
제3절 시골서 온 아이	① 창수 ② 한약국집주인영감 ③ 칠성아범	창수
제4절 불행한 여인	① 창수 ② 만돌어멈 ③ 귀돌어멈 ④ 만돌 ⑤ 수돌 ⑥ 필원이네 ⑦ 만돌아비	만돌어멈
제5절 경사	① 이쁜이네 ② 이쁜이 ③ 점룡이어머니 ④ 점룡 ⑤ 용돌 ⑥ 칠성어멈 ⑦ 수모 ⑧ 강서방(신랑)	이쁜이
제6절 몰락	① 신전집 ② 점룡이어머니 ③ 재봉	신전집
제7절 민주사의 우울	① 민주사 ② 늙은마누라 ③ 안성집 ④ 전문학생 ⑤ 청요리집아이	민주사

4) 초점인물이란 카메라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인물로서 각 장절의 소재목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장 결	등 장 인 물	초점인물
제8절 선거와 포목전 주인	① 재봉 ② 포목전주인 ③ 한약국영감 ④ 김서방 ⑤ 민주사	포목전주인
제9절 다사한 민주사	① 재봉 ② 민주사 ③ 안성집 ④ 전문학생	민주사
제10절 사월팔일	① 만들 ② 칠성아범 ③ 하나꼬 ④ 기미꼬 ⑤ 최옥 ⑥ 은방주인 ⑦ 점룡이어머니 ⑧ 귀돌어머니 ⑨ 수돌	하나꼬
제11절 가엾은 사람들	① 만들아버지 ② 필원이네 ③ 귀돌어범 ⑤ 점룡어 머니 ⑥ 민주사 ⑦ 강서방 ⑧ 이쁜이 ⑨ 이쁜이어범	① 만들아버지 ② 민주사 ③ 강서방 ④ 이쁜이 ⑤ 이쁜이어범
제12절 소년의 애수	① 창수 ② 재봉 ③ 만들어범 ④ 흥서방 ⑤ 은방주 인 ⑥ 하나꼬	창수
제13절 딱한 사람들	① 유꺼꼬 ② 줌똥똥하고 키작은사나이 ③ 키크고 마른사나이 ④ 은방주인 ⑤ 매리 ⑥ 하나꼬 ⑦ 최친 국(사이상) ⑧ 기미꼬 ⑨ 정옥 ⑩ 점룡이어머니 ⑪ 강서방 ⑫ 대머리진 손님 ⑬ 손주사 ⑭ 점룡	① 줌똥똥하고 키작은사나이 ② 키크고마른 사나이 ③ 은 방주인 ④ 최 친국 ⑤ 강서 방 ⑥ 손주사 ⑦ 점룡
제14절 허실	① 포목전주인 ② 민주사 ③ 한약국집주인영감 ④ 김침지 ⑤ 최영옥 ⑥ 안성집 ⑦ 전문학생	민주사
제15절 어느 날 아침	① 창수 ② 재봉 ③ 한약국집주인영감 ④ 귀돌어범 ⑤ 유꺼꼬 ⑥ 민주사 ⑦ 김서방 ⑧ 금점군(사나이) ⑨ 금순(젊은시골여자)	금순
제16절 방황하는 처녀	① 재봉 ② 김서방 ③ 금점군(젊은사나이) ④ 하숙 주인 ⑤ 금순 ⑥ 순동 ⑦ 시아버지 ⑧ 시어머니 ⑨ 중학생	금순
제17절 섶터 문답	① 김침지 ② 칠성아범 ③ 행랑아범 ④ 신침지 ⑤ 점룡이어머니 ⑥ 민주사 ⑦ 금순(젊은계집) ⑧ 필 원이네 ⑨ 만들어범 ⑩ 용돌 ⑪ 박서방	금순
제18절 저녁에 찾아온 손님	① 금순 ② 하숙주인 ③ 기미꼬(여자손님)	기미꼬
제19절 어머니	① 이쁜이어머니 ② 이쁜이 ③ 점룡이어머니 ④ 귀 돌어범 ⑤ 필원이네	이쁜이어머니
제20절 어느 날의 삽화	① 신전집마나님(중년부인) ② 창수 ③ 재봉 ④ 귀 돌어범 ⑤ 포목전주인 ⑥ 금순 ⑦ 기미꼬 ⑧ 김서방	금순
제21절 그들의 생활 설계	① 금순 ② 기미꼬 ③ 하나꼬	① 금순 ② 기 미꼬 ③ 하나꼬
제22절 종말 없는 비극	① 만들 ② 표서방 ③ 만들어범 ④ 귀돌어머니 ⑤ 수돌	만들어범
제23절 장마풍경	① 점룡 ② 김침지 ③ 포목전주인 ④ 민주사 ⑤ 한 약국집젊은머느리 ⑥ 점룡이어머니 ⑦ 이쁜이어 머니 ⑧ 용돌 ⑨ 각정이 ⑩ 최선아범	점룡

장	절	등 장 인 물	초점인물
제24절	참수의 급의환 합	① 재봉 ② 참수 ③ 김서방 ④ 열흘가게주인 ⑤ 심 부름하는 아이	참수
제25절	중산모	① 포목전주인 ④ 김서방 ③ 재봉	포목전주인
제26절	불운한 파락호	① 금점군 ② 복친사나이	금점군
제27절	여급 하나꼬	① 기미꼬 ② 다로 ③ 금점군 ④ 재봉 ⑤ 하나꼬 ⑥ 은방주인 ⑦ 최진국(사이상)	하나꼬
제28절	비 개인 날	① 포목전주인 ② 민주사 ③ 점통 ④ 김침지 ⑤ 용 돌 ⑥ 철성아범 ⑦ 점통이어머니 ⑧ 만돌아범	김침지
제29절	행부	① 한악국집머느리 ② 만돌이네	한악국집 머느리
제30절	꿈	① 하나꼬 ② 최진국(사이상) ③ 기미꼬	하나꼬
제31절	회화	① 안성집 ② 민주사 ③ 전문학생 ④ 여학생 ⑤ 강 육주 ⑥ 취육	① 안성집 ② 민주사
제32절	오십원	① 포목전주인 ② 김서방 ③ 최진국(사이상) ④ 하나꼬	하나꼬
제33절	금순의 생활	① 금순 ② 기미꼬 ③ 하나꼬	금순
제34절	그 날의 감격	① 금순 ② 아버지 ③ 순동 ④ 과부마나님 ⑤ 과 부마나님의외아들 ⑥ 하나꼬 ⑦ 기미꼬 ⑧ 점통	① 금순 ② 순 동
제35절	그들의 일요일	① 한악국집머느리 ② 남편 ③ 재봉 ④ 유꺼꼬 ⑤ 순주사 ⑥ 기미꼬 ⑦ 민주사 ⑧ 취육 ⑨ 김서방 ⑩ 순이 ⑪ 한악국집주인영감 ⑫ 귀들어미	① 한악국집머느 리 ② 재봉 ③ 유꺼꼬 ④ 순 주사 ⑤ 민주 사 ⑥ 취육 ⑦ 김서방 ⑧ 순 이 ⑨ 한악국집 주인영감
제36절	구락부의 소년 소녀	① 순동 ② 삼봉 ③ 유꺼꼬 ④ 영선 ⑤ 최서방 ⑥ 명 숙 ⑦ 경순	① 순동 ② 삼 봉 ③ 영선 ④ 명숙 ⑤ 경순
제37절	삼인	① 순동 ② 기미꼬 ③ 금순	① 순동 ② 기 미꼬 ③ 금순
제38절	다정한 안해	① 금순 ② 용서방 ③ 순동 ④ 신서방(언넌이아저 씨)	용서방
제39절	관철동집	① 민주사 ② 안성집	민주사
제40절	시집살이	① 기미꼬 ② 유꺼꼬 ③ 하나꼬 ④ 시어머니 ⑤ 시 아버지	하나꼬
제41절	젊은 녀석들	① 점통이 ② 점통이어머니 ③ 용돌 ④ 강서방 ⑤ 색씨	① 점통이 ② 강서방

장	절	등	참	인	물	초점인물						
제42절	장보의 사상	①	장석주	②	점룡이어머니	③	정숙	④	이쁜이	장석주		
제43절	홍분	①	금순	②	순동	③	기미교	④	하나교의 어머니	하나교		
제44절	거미	①	하나교의 어머니	②	기미교	③	금순	④	희가(최진국)	기미교		
제45절	민주사의 감상	①	민주사	②	취옥	③	효준	④	최진국	민주사		
제46절	근화식당	①	김철지	②	점룡이어머니	③	재봉	④	창수	⑤	금순이시부 ②근화식당 주인 ③시즈 꼬 ④점룡 ⑤ 강석주	
제47절	영이의 비애	①	영이	②	명준	③	명숙	④	기미교	⑤	시어머니	영이
제48절	평화	①	한약국집머느리									한약국집머느리
제49절	손주사와 그의 딸	①	손주사	②	기미교	③	금순					손주사
제50절	천변풍경	①	이쁜이	②	이쁜이어머니	③	점룡	④	시즈꼬	⑤	용돌	등장인물과 동일

이렇게 볼 때 제6절·제9절·제11절·제14절·제18절·제19절·제20절·제21절·제25절·제28절·제29절·제30절·제33절·제34절·제35절·제37절·제39절·제40절·제41절·제42절·제43절·제44절·제48절·제49절·제50절 등 모두 25절을 제외한 나머지 25절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특정 작중인물을 프롤타고니스트로 설정하여 그와 갈등·대립하는 안타고니스트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주제의식을 배제하고 이 모든 작중인물들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의식이 아닌 다양한 주제의식을 전달하려는 의도일 뿐 아니라<sup>5)</sup> 장절간의 연속된 스토리의 흐름을 무시한 시험적인 이야기의 전개방식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절마

5) 김현은 이러한 다양한 주제의식을 축첩·결혼·선거·직업관 등에서 찾고 있다.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p. 196.) 또한, 李在鎔은 여러 주제의식을 각종의 직업, 가정의 경제적인 몰락, 축첩·결혼·이혼·간통·인신매매, 불행한 여급들의 생애, 고부의 갈등, 욕망·사기·투전 및 기타 부유한 사람들의 묘사와 빈자의 삶의 대조, 저지들의 생애, 도시에 적응하는 모습 등에서 찾고 있다. (이재선, 앞의 책, p. 336)

다의 독립성이 강한 이야기들을 작자의 의미 있는 의도에 따라 배열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이한 플롯의 전개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래 중편소설이던 것을 장편소설로 확대 편집하면서 단편소설적 스토리를 중간중간 삽입시켜 나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렇다고 이 작품이 플롯이나 스토리의 유기적 결합이 결여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작중인물들을 중심으로 할 때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 절에 걸쳐서 연속된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먼저 이들 작중인물들의 계층을 3단계 계층론의 면에서 살펴 보면<sup>7)</sup>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으니 중류층의 인물과 하류층의 인물이다. 이 중 중류층에 속하는 인물은 한약국·약국·포목점·신전집·금은방 등의 인물들이고, 하류층의 인물들은 그 나머지 인물들로서 여기에는 드난살이·안잠자기·심부름군·이발소·식당·기생·여급·아이스크림장사·금점군·하숙주인·거지·근로청소년 등이 속한다. 좀더 구분해서 조선조의 9가지 계층의 이론에 입각해서<sup>8)</sup> 이들 인물들을 살펴 보면 먼저 중류층에 속하는 인물들을 볼 때 한약국집이나 약국집 인물들은 중인계층에 속하며, 포목점·신전집·금은방 등의 인물은 상민계층이다. 그리고, 하류층의 인물들은 모두가 천민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1930년대라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모두가 소시민에 속하는 인물들이며, 청계천 일대의 주변적 인물로 묘사되는 데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중류층이면서 중인계층인 한약국집이나 약국집의 인물은 행복하거나 기생과 관계할 수 있는 상층의 인물들이다. 한약국집의 경우 영감·아들·며느리가 설정되었는데 동경 어느 사립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아들과 이화여전을 나온 며느리는 둘 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로서 자유연애결혼을 하였으며 행복

6) 이러한 사실은 원래 《朝光》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1938년 博文書館 발행의 내용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밝혀질 것이다.

7) 曹南鉉, 《小說原論》, 高麗苑, 1982, p. 147.

8) 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 民學社, 1974, p. 15.

具滋均在 말한 조선조의 9가지 계층이란 ① 宗親 ② 國舅 ③ 駙馬 ④ 兩班 ⑤ 中人 ⑥ 庶孽 ⑦ 胥吏 ⑧ 常民 ⑨ 賤民 등이다.



한 결혼생활을 영위한다. 이에 반해서 꼭 같은 계층이지만 약국집의 최진국은 본부인과 이혼하고 하나꼬(英伊)와 재혼하면서도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하여 최진국은 때로는 기생과 관계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간다. 또한, 한약국집 며느리의 경우도 여인의 운명에서 볼 때 몹시 행복한 인물로 설정되어 최진국의 본부인이나 하나꼬와는 대립상항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약국집 며느리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하루계층의 만들어낸. 이쁜이·금순 등의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보다 부각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대립적 상황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유연애결혼을 한 한약국집 아들 내외를 긍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간접적이거나 자유연애결혼사상을 고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연애결혼사상은 〈川邊風景〉에서 서문을 쓴 朴泰遠의 스승인 李光洙 소설의 중요한 흐름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sup>9)</sup> 볼 수 있다.

같은 중류층이면서도 상민계층에 속하는 민주사·포곡점·신천집·금은방의 인물들은 각각 경제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 민주사의 경우 다른 인물에 비해 비교적 여러 장절에 걸쳐 묘사되고 있으며, 그의 주변인물들만 하더라도 본부인인 늙은 마누라·안성집·전문학생·여학생·취육·최영옥·강옥주·기순·효준 등 9명이나 된다. 그는 남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그보다 나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은 25세의 안성집에게 관철동에 다른 살림을 차려 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에 따라 기생 취육·최영옥과도 관계할 수 있는 쾌락적 인물이다. 그러기에 그보다 젊은 이발소의 김서방의 생기 있는 얼굴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젊은 약방주인의 권하는 정력제인 '요한비'를 열심히 복용하기도 한다. 이는 또 다른 허위적 삶을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최진국·강석주·은방주인 등과 동계적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부회의원에 출마하여 신분상승 내지는 지위향상을 꾀하지마는 결국 낙선함으로써 그것은 한낱 그의 실현할 수 없는 욕망으로 끝나고 만다.

신천집의 경우는 1930년대라는 특이한 시대적 배경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데,

9) 金九植·김현, 앞의 책, p.196.

정신·마른신의 우리의 토산품이 일본으로부터 새롭게 유입되는 고무신에 밀려남으로써 몰락하고마는 당시 서울 서민층의 비적응력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포목점의 안정됨과는 대립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따라서 신전집 처남은 물을 길거나 업저지 정도의 하강적 인물인 데 반해 포목전 처남은 부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하는 상승적 인물로 묘사되어 또 다른 대립적 상황을 파생시키고 있다. 또한, 포목전 처남의 부회의원 당선은 민주사의 부회의원 낙선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이처럼 중인이나 상민계층의 중류층 인물들이 하류층 인물을 거느리거나 부릴 수 있는 인물인 데 반해 하류층 인물들은 이들 중류층에 거느림을 당하거나 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다. 이들 하류층의 인물에는 안잠자기(귀들어멈·만들어멈)·드난살이(하나꼬 어머니)·심부름군(창수·얼음가게 아이)·이발소(김서방·재봉)·식당(근화식당주인·금순시부)·기생(취옥·최영옥)·여급(하나꼬·기미꼬·유끼꼬·시즈꼬·메리)·거지(작정이) 이외에도 이쁜이·금순·정옥·순이·점룡·용돌·강서방·금점군·하숙주인 등 다양한 직업적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서도 안잠자기·드난살이·심부름군은 조선조의 행랑채·머슴·하인 등의 이른바 노비의 존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그것이 신분적이 아니라 계약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구질서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생과 함께 여급들이 등장함으로써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민주사의 경우 안성집·취옥·최영옥 등의 전근대적 인물들과는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으나 여급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최진국의 경우 여급이었던 하나꼬를 그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여놓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취옥과도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성세대적 인물을 떠나서 작가가 몹시 애착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새로운 신세대의 인물들인 근로청소년의 순동·삼봉·경순·영선·명숙 등의 인물들이다. 이러한 신세대의 인물로는 이발소의 재봉, 한약국집의 창수도 마찬가지이다. 재봉이 작가의 대행 관찰자 역할을<sup>10)</sup> 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고

10) 이재선, 앞의 책, p.336.

수하는 쪽의 평면적 인물인 데 반해 창수는 도시에의 입문과정(initiation)을 통해<sup>11)</sup> 도시에 잘 적응 변하는 입체적 인물이다. 이러한 재봉과 창수의 인물 설정도 또 하나의 대립적 상황을 낳고 있다. 이 외에도 시집살이면에서 볼 때 하나꼬와 이쁜이의 시집살이가 대립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꼬는 시집살이에 견디는 인물로, 이쁜이는 시집살이에 견뎌내지 못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러한 대립상황들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   |                 |              |          |
|---|-----------------|--------------|----------|
| ① | 최진국             | 결혼생활 및 재혼정도  | 한약국집 아들  |
| ② | 최진국 본부인         | 여인의 운명정도     | 한약국집 며느리 |
| ③ | 하나꼬             | 시집살이 정도      | 한약국집 며느리 |
| ④ | 만들어멈 · 이쁜이 · 금순 | 결혼생활 정도      | 한약국집 며느리 |
| ⑤ | 신전집             | 물락정도         | 포목점      |
| ⑥ | 신전집처남           | 상승과 하강의 정도   | 포목점처남    |
| ⑦ | 민주사             | 선거의 승패 정도    | 포목점처남    |
| ⑧ | 재봉              | 현실의 적응 변화 정도 | 창수       |
| ⑨ | 이쁜이             | 시집살이 정도      | 하나꼬      |

그런데, 이러한 작중인물의 계층 문제는 애피레이션(appellation)의 방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격창조의 가장 간

11) 윗책, p. 338.

단한 형태가 명명이라는<sup>12)</sup> 것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성세대의 대표적 인물군들인 민주사·손주사·김침지·신침지 등은 주사내지 침지라는 조선조의 벼슬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명칭 앞에 각각의 성을 덧붙여 '성+주사', '성+침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가장 보수적이거나 구시대적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인물들로 설정되었다. 남자들의 경우 이들에 이어 그 다음 위치를 차지하는 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인물들인 김서방·홍서방·박서방·표서방·용서방·신서방 등은 '성+서방'의 형태를 취하여 하층의 평범한 남정네들을 호칭하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조금은 교육을 받았거나 근대적 성격의 젊은 세대적 인물들은 최진국·강석주·용돌·점룡 등 고유명사의 구체적 인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명의 고유명사화는 신세대인 근로청소년의 순동·삼봉·경순·영선·명숙 등과, 이들과 비슷한 세대인 재봉·창수·효준·명준·기순 등의 인물들로 연결된다. 그런가 하면 칠성어범·만돌아버·행랑어범 등의 인물군들은 '자식의 이름+아버(또는 아범)'의 형태를 취하여 노비적 성격의 하류층 인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하류층 여인네들의 경우도 이쁜이 어머니(이쁜이네)·귀돌어멈·칠성어멈·점룡이 어머니·만돌어멈·필원이네·하나꼬 어머니·안성집 등 '자식의 이름+어머니', '자식의 이름+네', '고향+집'의 아낙네들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 의미가 가장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애펠레이션의 형태는 기생과 여급의 이름인데, 기생의 경우 취옥·최영옥 등으로 표시되는 데 반해 여급의 경우 하나꼬·기미꼬·유끼꼬·시즈꼬·매리 등 일본식 이름이거나 미국식 이름을 사용하여 보수적인 성격과 근대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川邊風景>에 있어서의 애펠레이션은 개개의 이름이 지닌 성격창조의 상징성 보다는 세대간 또는 계층간의 의미를 더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René Wellec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6. p. 219.

The simplest form of characterization is naming. Each 'appellation' is a kind of vivifying, animizing, individuating.

### 3. 카메라의 이동

소설가들은 거의 처음부터 정지해 있는 기구로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기구로서의 카메라가 되어 도시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집 안으로의 공간적 이동<sup>13)</sup>뿐만 아니라 서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 등의 방법을 통한 시간적 이동을 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소설가는 카메라인 동시에 이 카메라를 조정하는 감독자일 수가 있다.<sup>14)</sup> 〈川邊風景〉의 경우 이러한 카메라의 이동수법이 어떤 특정인물을 존중하여 그 인물을 쫓아서 이동해 가는 전통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의 카메라를 움직이는 파노라마식 촬영법을 채택함으로써 카메라의 눈(camera-eye)과 카메라의 이동수법을 보다 세련시키고 있다. 이미 崔載瑞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川邊風景」이 우리에게 주는 興味는 흘러가는 스토리나 或은 作家 自身の 多彩한 個性이 주는 興味는 아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作者를 意識한다면 그것은 實로 不在意識뿐이다. 즉 우리가 키네마를 보면서 카메라의 存在를 意識치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作品을 읽으면서 作者를 意識하지 않는다. 作者의 位置는 이 作品 안에 있지 않고 그 밖에 있다. 그는 自己 意思에 應하여 어떤 假作的 스토리를 따라가며 人物을 操縱치 않고 그 代身 人物이 움직이는 대로 그의 카메라를 回轉 乃至 移動하였다. 勿論 그 카메라는 小說家의 눈이다. 朴氏는 그의 눈 렌즈 위에 主觀의 먼지가 앉지 않도록 恒常 操心하였다. 그 結果는 우리 文壇에서 드물게 보는 鮮明하고 多角的인 都會 描寫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sup>15)</sup>

13) Leon Edel, “小說과 카메라”, 《現代小說의 理論》, 崔翔圭譯, 大邦出版社, 1986, p. 516.

14) 崔載瑞, 앞의 글, p. 101.

15) 윗글, pp. 102~103.

崔載瑞의 이러한 지적은 작품외적 자아인 작가의 주관성을 최대한으로 배제하여 작중화자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거나 객관화시킴으로써<sup>16)</sup> 그 서술상황의 특이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래 중편소설이던 것을 장편소설로 확대하면서 50개의 삽화를 재치 있게 연결<sup>17)</sup> 편집솜씨를 발휘하는<sup>18)</sup> 모자이크식 배열 방식<sup>19)</sup> 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50절로 나누어진 50개의 작은 이야기들을 모은 장편소설이요, 그래서 단위부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이들의 집합에 의한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된다는 Picaresque구조를 원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때문에 일견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소설이라는 인상보다는 산만하고 중심이나 주제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E. M. Forster의 세태의 여러 단면들을 나열만 하고 작자의 주장이나 생각이 개입 없는 제시 또는 보여주기 수법에 의한 단순한 세태풍속소설로 보여진다.

그러나, 〈川邊風景〉을 카메라의 이동에 따른 장절간에 설정된 작중인물들의 연속성의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 치밀한 구성과 사건의 얽힘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의 〈표 2〉는 각 장절간에 설정된 작중인물들의 연결성을 밝힌 것이다.

16) 작중화자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거나 객관화시켰다는 것은 작중화자의 모습이 전혀 외현되지 않고 내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제6절 몰락'의 경우는 외현된 작중화자의 모습을 얼마든지 엿볼 수 있다.

「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데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수이 신전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朴泰遠, 〈川邊風景〉, 슬기, 1987. p.6)

17) 金允植·김현, 앞의 책, p.195.

18) 조동일, 앞의 책, p.429.

19) 林 和, 앞의 글, p.358.

20) 金重河, 앞의 글, p.206.

〈표2〉 작중인물의 장절간 등장횟수

작중인물	등장인물로서 설정된 장절(A)	초점인물로서 설정된 장절(B)	B의 회수 / A의 회수
① 재봉	제2절, 제6절, 제8절, 제9절, 제12절, 제15절, 제16절, 제20절, 제24절, 제25절, 제27절, 제35절, 제46절, 제50절	제2절, 제35절, 제50절	3/14
② 창수	제3절, 제4절, 제12절, 제15절, 제20절, 제24절, 제46절, 제50절	제3절, 제12절, 제24절, 제50절	4/8
③ 민주사	제1절, 제2절, 제7절, 제8절, 제9절, 제11절, 제14절, 제15절, 제17절, 제23절, 제28절, 제31절, 제35절, 제39절, 제45절	제1절, 제7절, 제9절, 제11절, 제14절, 제31절, 제35절, 제39절, 제45절	9/15
④ 안성집	제7절, 제9절, 제14절, 제31절, 제39절	제39절	1/5
⑤ 전문학생	제7절, 제9절, 제14절, 제31절		0/4
⑥ 취옥	제1절, 제10절, 제31절, 제35절, 제45절	제1절, 제35절	2/5
⑦ 김서방	제2절, 제8절, 제15절, 제16절, 제20절, 제24절, 제25절, 제32절, 제35절, 제50절	제35절, 제50절	2/10
⑧ 점봉	제1절, 제5절, 제13절, 제23절, 제28절, 제34절, 제41절, 제46절, 제50절	제1절, 제13절, 제23절, 제41절, 제46절, 제50절	6/9
⑨ 강서방	제5절, 제11절, 제13절, 제41절, 제42절, 제46절	제11절, 제13절, 제41절, 제42절, 제46절	5/6
⑩ 최진국	제13절, 제27절, 제30절, 제32절, 제44절	제13절	1/5
⑪ 금순	제5절, 제16절, 제17절, 제18절, 제20절, 제21절, 제33절, 제34절, 제37절, 제38절, 제43절, 제44절, 제49절	제15절, 제16절, 제17절, 제20절, 제21절, 제33절, 제34절, 제37절	8/13
⑫ 손주사	제13절, 제35절, 제49절	제13절, 제35절, 제49절	3/3
⑬ 신전집주인	제1절	제1절	1/1
⑭ 신전집주인마님	제6절, 제20절	제6절, 제20절	2/2
⑮ 하나묘 (美伊)	제2절, 제10절, 제12절, 제13절, 제21절, 제27절, 제30절, 제32절, 제33절, 제34절, 제40절, 제42절, 제47절	제2절, 제10절, 제21절, 제27절, 제30절, 제32절, 제40절	7/13
⑯ 기미묘	제2절, 제10절, 제13절, 제18절, 제20절, 제21절, 제27절, 제30절, 제33절, 제34절, 제35절, 제37절, 제40절, 제43절, 제44절, 제47절, 제49절	제18절, 제21절, 제37절	3/17
⑰ 순동	제16절, 제34절, 제36절, 제37절, 제38절, 제43절	제36절, 제37절	2/6
⑱ 이쁜이	제5절, 제11절, 제19절, 제41절, 제42절, 제50절	제11절, 제50절	2/6

작중인물	등장인물로서 설정된 장절(A)	초점인물로서 설정된 장절(B)	B의 횟수/A의 횟수
①9 이쁜이 어머니	제1절, 제5절, 제19절, 제23절	제1절, 제19절	2/4
②0 은방주인	제10절, 제12절, 제13절, 제27절	제13절	1/4
②1 용돌	제1절, 제6절, 제17절, 제23절, 제28절, 제46절, 제50절	제1절, 제50절	2/7
②2 한약국 집머느리	제4절, 제23절, 제29절, 제35절, 제48절	제29절, 제35절, 제48절	3/5
②3 만들어멈	제1절, 제4절, 제12절, 제22절, 제29절	제4절, 제22절	2/5
②4 만돌아비	제4절, 제11절, 제28절	제11절	1/3
②5 목동전 주인	제8절, 제25절, 제28절, 제32절	제8절, 제25절	2/4
②6 하나꼬 어머니	제2절, 제43절, 제44절	제43절	1/3
②7 정옥	제13절, 제42절		0/2
②8 금점군	제15절, 제26절, 제27절		0/3
②9 최영옥	제14절		0/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장절에 등장한 인물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기미꼬(17절) > 민주사(15절) > 재봉(14절) > 금순(13절) · 하나꼬(13절) > 김서방(10절) > 점룡(9절) > 창수(8절) 등의 순이다. 그러나, 그 장절에서 주변인물이 아닌 주요 인물의 성격을 띤 초점인물의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민주사(9절) > 금순(8절) > 하나꼬(7절) > 점룡(6절) > 김서방(5절) 등의 순이 되어 앞의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川邊風景〉을 외적 구조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중편소설을 장편 소설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단편소설적 삽화들을 삽입함으로써 생겨나는 유기적 결합력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나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적 구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를테면 기미꼬의 경우는 가장 많은 장절인 17절에 걸쳐 등장하고 있으나 카메라의 초점이 그녀에게 맞추어진 경우는 불과 3절에 불과하다. 이것은 나머지 14절이 다른 작중인물들과의 상관성하에서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물간의 유기적 관계가 플롯의 면을 떠나 스토리의 면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작중화자의 성격을 가장 짙게 띠고 있는 재봉이에



게서도 볼 수 있는데, 총 14절에 걸쳐 등장하는 그가 초점인물로 설정된 것도 불과 3절에 불과하여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미꼬 다음으로 많은 장절에 등장한 민주사의 경우는 15절에 걸쳐 등장하는데 앞의 기미꼬나 재봉과는 달리 가장 많은 카메라의 초점인 9절에 걸쳐 모아짐으로써 작가가 하고 싶어하는 많은 얘기들을 민주사를 통해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사의 주변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성집·전문학생·취옥·최영옥·여학생 등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변인물들은 민주사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등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금순과 하나꼬의 경우도 각각 총 13절에서 작중인물로 등장하는데, 카메라의 초점이 이들에게 집중된 경우는 8절과 7절로 작가가 많은 분량을 이들의 등장에 할애하고 있다. 그것은 금순의 경우 결혼과정, 상경과정, 기미꼬와의 만남과정, 순동과의 재회과정, 손주사와의 미래 등의 스토리 전개과정을 통해 금순을 〈川邊風景〉의 주요인물로 설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하나꼬의 경우도 하나꼬 어머니의 드난살이, 은방주인과의 만남, 최진국의 청춘, 하나꼬의 망설임, 최진국과의 결혼, 시집살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한 의도들을 형상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순과 하나꼬에 대한 스토리나 플롯의 전개과정을 통한 작품의 유기적 구조는 이들과 대립적 인물인 한약국집 며느리를 분석해 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총 5절에 걸쳐 등장한 한약국집 며느리는 제29절·제35절·제48절에 걸쳐 카메라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절에 걸친 카메라의 초점을 받는 한약국집 며느리는 그것이 금순·하나꼬 등의 인물과 대립된 상황의 인물로 그려짐으로써 유의미성을 획득하는 것이지 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인물의 설정은 별의미가 없어진다. 이를테면 ‘제48절 평화’는 한약국집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600자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평화의 의미는 금순이나 하나꼬 등의 인물군들과 연계성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제1절 청계천 빨래터’, ‘제16절 방황하는 처녀성’, ‘제46절 근화식당’ 등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단편소설로 완결될 수 있을 정도인 200자 원고지 65매 내외로 짜여져 있어, 그 각각의 단편소설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

나, 이들을 다른 장절과 비교해 볼 때 그 길이에 일관성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는 장절에 있어서의 기능상의 필요성에 의한 조정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짧은 절은 요약적 제시에 의한 사건 그 자체의 마무리나 큰 관심 밖 인물의 서술에, 긴 것은 전체적 맥락에 연결되는 사건의 얽힘과 집중적 서술이 필요한 인물에 한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그러므로, 장편소설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나 이 소설의 형태가 '제1절 청계천 빨래터'에서부터 '제50절 천변풍경'까지 50개의 장절로 이루어진 외적 구조의 면에서는 Picaresque 구조내지는 모자이크식 구성의 방법을 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장절간 작중인물의 설정에 따른 카메라의 초점의 이동상황을 고려하는 내면적 구조의 면에서는 나름대로 치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장절은 <川邊風景>이라는 작품의 전체적 의미에서 볼 때 그 독자성이 상실되면서 전체적으로 잘 융화되거나 부분적 의미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카메라의 눈내지는 카메라를 조작하는 감독자가 되어 보다 세련된 영화촬영법(cinematography)을 시도하는 셈이 되며,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나 주제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원심적 구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4. 욕망의 삼각형

하나의 문학작품에서 그 내용이 그 사회를 반영하느냐, 주인공의 설정 자체가 그 사회를 반영하느냐, 또는 소설의 구성이나 소설의 서술 형태가 그 사회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진실일 수가 있으며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가장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인물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획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전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인물을 그리거나 그 사회를 특징지을 수 있는 인물들을 제대로 그렸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되기

21) 金重河, 앞의 글, p.207.

때문이다. 바로 〈川邊風景〉에 대한 기존의 세태소설이라는 관점은 그 당시 사회를 특징지을 수 있는 인물들을 다양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작중인물들이 어떠한 욕망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인물의 전형성과 사회의 전형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né Girard에 의하면 주체가 되는 인간은 대상이 되는 무엇을 욕망하지만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없고 욕망의 대상을 지시하는 중개자(mediator)가 필요한데, 이때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는 선망·경쟁·증오가 뒤섞인 뜨겁고도 미묘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22)</sup>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개인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의 자기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자기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데, 이때 초월은 자신이 욕망을 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sup>23)</sup> 이때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없는 외면적 간접화(extern mediation)도 있는가 하면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는 내면적인 간접화(intern mediation)도 있을 수가 있다.<sup>24)</sup> 물론 이러한 지라르의 이론적 배경에는 시장경제체제의 사회를 그 기반으로 해서 개인은 그 욕망마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중개자에 의해 감시된 욕망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제시한 셈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공의 욕망구조와 주인공을 태어나게 한 사회의 경제구조 사이에 구조적 동질성을 발견하게 하는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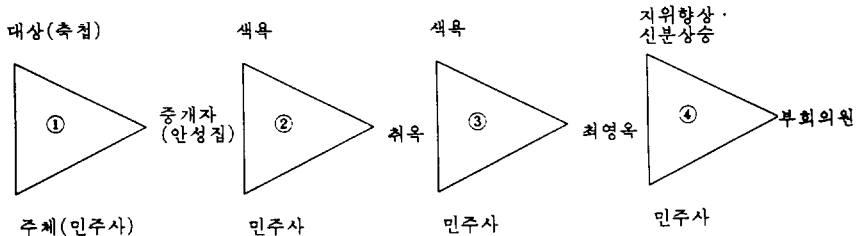
22) René Girard, 《小說의 理論》, 金允植譯, 三英社, 1986, p. 3.

23) 金治洙,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0, p. 181.

24) 지라르는 외면적 간접화의 실례를 〈돈키호테〉와 〈보봐리부인〉에서 찾고 있는데, 〈돈키호테〉에서 주체인 돈키호테가 중개자인 아마디스를 통해 대상인 이상적인 기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나, 주체인 산초판사가 중개자인 돈키호테를 통해 대상인 섬과 공작부인의 칭호를 얻고자 하는 것과, 또한, 〈보봐리부인〉에서 엠마 보봐리라는 주체가 삼류소설의 여주인공, 혹은 바리의 유행잡지에 나오는 여주인공이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낭만적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내면적 간접화의 실례는 〈赤과 黑〉에서 찾고 있는데, 레날이 주체의 위치에 있고 줄리앙이 대상의 위치에 있으며 발노가 중개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와, 주체가 마뎔드이고 중개자가 페르바크 뵐수 부인이며 대상이 줄리앙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라르가 한 예로써 들고 있는 돈키호테나 산초판사의 욕망은 비단 이러한 시장경제체제 사회에서의 현대인의 욕망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고전적 작품의 인물들의 욕망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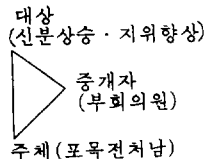
그런데, <川邊風景>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의 욕망구조는 이 작품을 낳게 한 당대의 사회적 구조와 동질성을 갖고 있다. 먼저 민주사의 욕망구조는 크게 세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안성집을 중개자로 하여 축척이라는 대상을 성취하려는 욕망과, 취옥·최영옥 등을 중개자로 하여 색욕이라는 대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적 욕망구조와, 또 하나는 부회위원을 중개자로 하여 신분 상승내지는 지위 향상을 꾀하는 욕망이다<sup>26)</sup>.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25) 金國會, "韓國小說의 欲望構造 研究: 欲望의 仲介化 現象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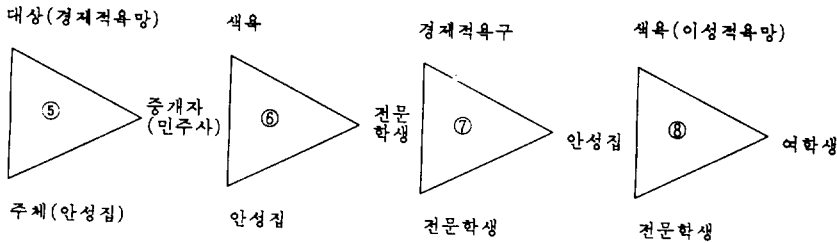
그러나 위 논문은 시장경제체제라는 배경을 증시한 나머지 고소설의 경우<春香傳>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이유를 <春香傳>이 나타난 18세기가 자본주의의 맹아가 나타나 교환가치가 발생, 보편화된 시기로 볼 수 있어 욕망의 중개화 구조가 분석될 수 있으리라는 가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春香傳>의 배경설화라고 할 수 있는 도미설화내지는 박문수설화 등과의 연관성 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라르가 제시한 돈키호테나 산초판사의 욕망구조와도 맞지 않다. 더우기 金治洙는 기독교인의 욕망구조를 그 중개자로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욕망구조도 꼭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6) ④와 비슷한 욕망구조는 포목전 처남의 욕망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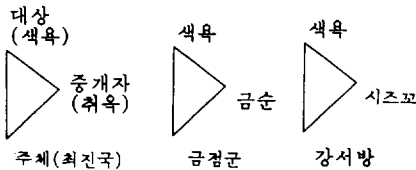


①은 주체인 50세의 민주사가 그보다 나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 25세의 안성 집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축첩의 대상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리하여 그는 안성집으로 하여금 관철동에다 다른 살림을 차리게 하고 필요에 따라 드나든다. 이러한 다른 살림을 차려줄 수 있는 힘은 민주사의 경제적 힘인 것이며 이러한 민주사의 욕망구조는 당시의 축첩제도와 연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②와 ③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민주사가 기생인 취옥이나 최영옥을 통해서 그의 속물적 욕망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sup>27)</sup> 이러한 민주사의 속물적 욕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취옥·최영옥 등의 기생에 의해 암시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④는 민주사의 재력을 바탕으로 부회의원이라는 중개자를 모방함으로써 신분 상승대지는 지위 향상의 대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때의 민주사의 욕망도 부회의원이라는 중개자에 의해 암시받은 것으로써 민주사의 자연발생적 욕망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축첩제도·기생제도·부회의원제도는 그 당시의 사회적 제도들이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민주사의 중개자로 작용하여 욕망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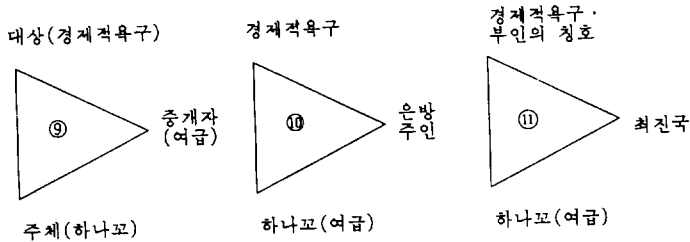
이러한 민주사의 욕망구조는 그의 주변인물들의 욕망구조로 확대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들은 바로 이러한 민주사의 주변인물들의 욕망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7) ②·③과 비슷한 욕망구조는 최진국·금점군·강서방 등의 욕망구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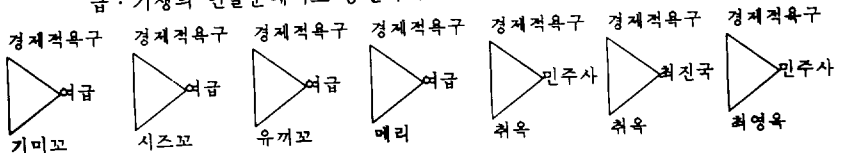


⑤·⑥은 안성집의 욕망구조를, ⑦·⑧은 전문학생의 욕망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⑤에서 안성집은 그녀를 민주사의 첩으로 사용가치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이라는 교환가치를 획득한다. 그러나, 그녀보다 훨씬 높은 민주사를 통해서 경제적 욕망은 충족할 수 있지만 색욕은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녀의 색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젊은 전문학생이 필요하게 된다. ⑦·⑧의 경우 전문학생은 안성집을 통해서 경제적 욕망을, 여학생을 통해서 색욕내지는 연애대상으로서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민주사 다음으로 다양한 욕망구조를 나타내는 인물은 하나꼬이다. 하나꼬의 욕망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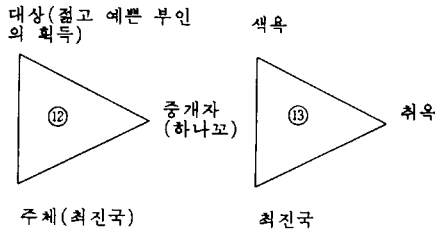
⑨는 주체인 하류층 인물인 하나꼬가 중개자인 여급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이라는 대상으로 나아가는 욕망구조이다.<sup>28)</sup> 하나꼬의 이러한 욕망은 역시 자연발생적이 아닌 당시의 여급이라는 제도에 의해 암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⑩은 이미 여급의 신분이 되어 버린 하나꼬가 은방주인이라는 중개자를 통해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꼬와 은방주인과의 관계는 하나꼬와 최진국의 초기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

28) ⑨와 같은 욕망구조는 기미꼬·시즈꼬·유끼꼬·메리·취옥·최영옥 등의 여급·기생의 인물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는데, 하나꼬는 최진국을 처음 대할 때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개자로서 그와 만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진국의 욕망에 의해 그녀는 최진국이 본부인과 이혼하게 하고 그와 정식 결혼함으로써 부인의 칭호를 획득하여 여급에서 최진국의 정식부인으로 상승을 꾀할 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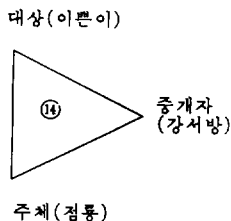
이에 반해 최진국의 욕망구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꼬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취옥과의 관계에서이다.



⑫는 구식적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본부인과 이혼하고 젊고 예쁜 하나꼬와 결혼함으로써 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진국의 이러한 욕망은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그의 본부인과는 대립적인 하나꼬에 의해 암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⑬은 취옥이라는 중개자에 의해 그의 속물적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①에서 ⑬까지의 욕망구조에 있어서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없는 외면적 간접화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川邊風景〉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의 욕망구조는 대부분 외면적 간접화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이쁜이·강서방·점롱 사이에 있어서 점롱이의 욕망구조는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뚜렷한 경쟁관계가 있는 내면적 간접화의 방법이다.



⑭에서는 비단 주체인 점룡이뿐만 아니라 점룡이 어머니 역시도 이쁜이를 아내내지는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그들에게 강서방이 끼어들어서는 이쁜이는 결국 강서방의 아내가 되고 만다. 그래서, 점룡이는 항상 마음 속에서 이쁜이를 지워 버릴 수가 없으며, 그러한 이쁜이를 향하는 마음은 강서방에게는 증오감까지 향하게 한다. 이런 점룡이의 마음은 근화식당에서 시즈코에게 추근거리는 강서방에게 난폭한 행동을 가하게 한다. 이에 강서방은 그러한 행동이 이쁜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쁜이와 이혼한다. 따라서, 주체인 점룡과 중개자인 강서방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川邊風景>에 나타난 작중인물들은 그 욕망구조의 면에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물 상호간에도 매우 유기적 구조를 갖고 있다.

## 5. 공간구조

문학은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예술이다. 이 말은 문학에 있어서 인간의 삶과 존재를 해명하기 위하여 선택된 시간과 공간의 질서가 있음을 의미한다.<sup>29)</sup> 좀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인식의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설명한다면 시간의 질서를 모방하는 분야는 플롯·리듬·문법 따위이고 공간의 경우는 사상·이미지·성격 등이 해당된다.<sup>30)</sup> 따라서, 작품 속에서의 공간의 의미는 작

29)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의 이론은 단적으로 자연의 모방을 의미한다. 이때 자연이란 감각상 인식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세계에 내재한 우주의 질서, 즉 로고스의 세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인의 임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이란 보편적이며 항구적 세계인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의 삶과 존재를 해명하기 위해 선택된 시간과 공간의 질서라 말할 수 있다.

30) 吳世榮, “文學에 있어서의 時間의 問題”, 《韓國文學》, 1976. 1.



중인물의 사상·이미지·성격 등이 가시적으로 형상화된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 속의 공간은 수학적 공간<sup>31)</sup>이 아니라 작중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적인 삶의 공간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현실적인 삶의 공간에는 수학적 공간과는 달리 특수한 중심점이 있어서 이 중심점을 주축으로 하는 특수한 유기적 구조가 성립되며, 모든 장소들이 서로 성질상 구별되어 장소들 사이에는 유동적인 혹은 엄격한 경계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유한한 것으로 주어졌다가 점차 무한한 넓이로 확대하여 가는 성질이 있다.<sup>32)</sup>

〈川邊風景〉의 경우 이러한 작중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적인 삶의 공간은 청계천 일대를 그 중심지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한 중심점의 역할을 띠고 있는 것이 빨래터와 이발소로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가 여인네들의 뉴스의 교환소라면 후자는 남자들의 생활감정의 청산소로서<sup>33)</sup> 광장적 의미의 공간들이다. 이와 같이 빨래터를 중심으로 해서 뉴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광장적 공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점과 이어지는 또 다른 밀실적 공간이 필연적으로 탄생될 수밖에 없으며, 역시 광장적 공간의 이발소를 중심점으로 생각할 때도 남자들의 생활감정의 청산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밀실적 공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각각의 이원화된 이발소와 빨래터에는 남성적 공간과 여성적 공간의 성격으로 인해 엄격한 경계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둘 다 광장적 의미의 공간이기 때문에 유기적 결합력이

31) Bollnow에 의하면 수학적 공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수학적 공간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점도 다른 하나의 점들에게서 성질상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자연적인 중심점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어느 곳이나 중심점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로 수학적 공간의 동질성이란 공간에선 어떤 하나의 방향도 다른 방향들과 성질상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방향을 임의로 전환할 수 있으며 어떤 방향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공간의 주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학적 공간은 그 자체로서 유기적인 구조가 없고 동질적으로 무한히 연장된다.

32) 李奎浩, "時間과 空間의 哲學: 現象學의 人間學의 立場에서", 《思想界》 182, 1968, p. 214.

33) 崔載瑞, 앞의 글, pp. 104~105.

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밀실적 공간의 역할을 위한 장치로써 설정된 공간이 평화카페·근화식당·관철동·강옥주의 집 등이다. 이들 밀실적 공간에는 유한 한량들이 여급·기생·첩 등과 어울림으로써 혼성적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며 그것은 환락적이고 퇴폐적 공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이들 밀실적 공간으로 나아가는 인물들이 어머니의 태반 속에 있을 때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원형적 이미지로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 있을 때에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요나콤플렉스 때문에<sup>34)</sup> 형상화된 공간이다.

그런데, 〈川邊風景〉에 많은 인물들을 설정함으로써 처음에는 이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 공간적 배경이 청계천 일대의 유한성에서 벗어나 점차 무한한 넓이로 확대하여 그들과 관련된 작중인물들의 활동범위에 따라 공간은 얼마든지 넓혀져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신전집이 옮겨가 사는 강화도, 민중사가 다른 살림을 차릴 수 있는 관철동이나 떠날 수 있는 여행지, 종로 근처의 근화식당, 금은방, 당구장, 청소년 구락부 등은 무한한 넓이로 공간이 확대하여 가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川邊風景〉의 공간이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카메라의 이동에 따른 원심적 구조에 의한 개방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 6. 마무리

〈川邊風景〉은 원래 중편소설이던 것을 장편소설로 확대하면서 장절간의 독립성이 강한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작품의 내적구조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인물의 설정, 카메라의 이동, 육망구조, 공간구조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결론 삼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4) Gaston Bachelard, "詩的 이미지와 想像力", 郭光秀譯, 《文藝中央》第4卷 가을號, 1981, p.338.

첫째, 인물의 설정에서는 80여 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각 장절간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플롯이나 스토리의 유기적 구조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짜여 있음을 파악했으며, 이들 인물들은 중류층의 중인·상민계층의 인물들과 하류층의 천민계층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러한 계층적 의미는 애편레이션의 방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이들 인물 사이에는 결혼, 여인의 운명, 시집살이, 몰락정도, 상승과 하강, 선거, 현실의 적응과 변화 등의 복잡한 대립상황을 통해 간접적이거나 주제의식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둘째, 카메라의 이동에서는 인물의 설정에서 논의한 각 장절간에 나타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지를 밝혔다. 단순히 장절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면에서는 기미꼬(17절)〉민주사(15절)〉재봉(14절)〉금순(13절)·하나꼬(13절)〉김서방(10절)〉점룡(9절)〉창수(8절) 등의 순이었으나 그 장절에서 카메라의 초점이 모아진 초점인물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에는 민주사(9절)〉금순(8절)〉하나꼬(7절)〉점룡(6절)〉김서방(5절)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는 초점인물과 주변인물 사이의 연계성과 각각의 삽화적 성격이 강한 장절들이 장편소설이라는 〈川邊風景〉의 의미에서 그 독립성을 상실하거나 부분적 의미로 전락하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각 장절간의 유기적 구조가 뚜렷함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셋째, 욕망의 삼각형에서는 각 인물들의 욕망구조를 파악하였는데 축첩·색욕·지위향상(신분상승)·경제적 욕망 등은 당시의 축첩제도·기생·여급제도·선거제도 등의 사회적 구조와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욕망구조는 대부분 외면적 간접화의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네째, 공간구조에서는 공간의 중심점이 여성적 공간인 빨래터와 남성적 공간인 이발소로 이원화되어 광장적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이 뚜렷하였으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평화카페·근화식당·관철동·강욱주의 기생집 등의 밀실적 공간이 탄생되면서 점점 무한대로 공간의 영역이 확대되는 개방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었다.

## 참 고 문 헌

- 朴泰遠, 〈川邊風景〉, 슬기, 1987.
- 具滋均, 〈朝鮮平民文學史〉, 민學社, 1974.
-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成文閣, 1978.
- 金允植, 〈韓國近代文學의 理解〉, 一志社, 1973.
- 金允植·김 현, 〈韓國文學史〉, 민음社, 1981.
- 金治洙,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0.
- 白 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0.
- 曹南鉉, 〈小說原論〉, 高麗苑, 198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弘盛社, 1979.
- 金炳旭編, 〈現代小說의 理論〉, 崔翔圭譯, 大邦出版社, 1986.
- Aristotle, *Poetic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7.
- E. M. Forster, *Aspects of the Novel*, Penguin Books, 1972.
- Georg Lukács, 〈小說의 理論〉, 潘星完譯, 심설당, 1985.
- Lucien Goldman, 〈小說社會學을 위하여〉, 조경숙譯, 청하, 1984.
- Michel Zeraffa, *Fictions*, Penguin Books, 1976.
- René Girard, 〈小說의 理論〉, 金允植譯, 三英社, 1976.
- René Wellec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s, 1976.
- S. Rimmon-Kenan, 〈小說의 詩學〉, 崔翔圭譯, 文學과 知性社, 1985.
- Tzvetan Todorov, 〈構造詩學〉, 郭光秀譯, 文學과 知性社, 1980.
- 金國會, "韓國小說의 欲望構造 研究: 欲望의 仲介化 現象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金重河, "朴泰遠論試攷: 「小說家仇甫氏의 一日」, 「川邊風景」에 한하여", 〈世界的文學〉 49, 민음社, 1985.

- 朴鍾和, 「川邊風景」을 읽고, 《博文》 6호, 1939.
- 吳世榮, 「文學에 있어서의 時間의 問題」, 《韓國文學》, 1976. 1.
- 李奎浩, 「時間과 空間의 哲學: 現象學的 人間學的 立場에서」, 《思想界》 182, 1968.
- 林 和, 「世態小說論」, 《文學의 理論》, 學芸社, 1940.
- \_\_\_\_\_, 「新刊評叢」, 《博文》 6호, 1939.
- 崔載瑞, 「川邊風景」과 「날개」에 關하여: 리아리즘의 擴大와 深化, 《文學과 知性》, 人文社, 1938.
- Gaston Bachelard, 「詩的 이미지와 想像力」, 郭光秀譯, 《文藝中央》 第4卷 가을호, 1981.